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12월 15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15.(수) 오전 10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12. 14.(화)	담당부서	디지털경제통상과 신남방통상과
담당과장	이경수 과장(044-203-5630) 김범수 과장(044-203-5710)	담 당 자	최원엽 서기관(044-203-5619) 임수지 사무관(044-203-5635) 박찬서 사무관(044-203-5718)

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한-싱 디지털동반자협정(Digital Partnership Agreement, DPA) 타결 선언

- 2022년 CPTPP 의장국인 싱가포르에 한국의 CPTPP 가입 적극 지지 요청 -

- 통상교섭본부장, 싱가포르 방문(12.13(월)~12.17(금)) 양자/다자 통상협력 강화 -

1 한-싱가포르 DPA 타결 선언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**은 '21.12.15(水) 탄시렝(Tan See Leng)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**"한-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"**(Korea-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, 이하 '한-싱 DPA') **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선언**하고 **타결 공동성명에 서명**함

※ 한-싱 디지털동반자협정(KSDPA) 협상 타결 선언식 개요

- (일시/장소) 12.15(수) 9:00 (현지시각) / 싱가포르 통상산업부
- (참석자) 우리측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, 싱측 탄시렝 통상산업부 제2장관 등
- (내용) 양측 인사말씀, 타결 공동성명 서명 및 기념사진 촬영 등

○ 양국은 '20.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, **화상회의 방식**으로 **제10차 협상까지** 진행하면서 **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조항을 균형 있게 반영**함

* 제1차 협상 개시('20.7월) 이후 금년 제5차(1월), 제6차(2월, 2회), 제7차(3-4월), 제8차(5월, 2회), 제9차(8월, 2회) 제10차(12월, 1회), 회기간 협상 등을 거쳐 타결

□ **여 본부장**은 '21.12.15(수) 한-싱 DPA 협상 타결식에서 **"한-싱 양국은 개방경제 국가로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**하고 있으며, 양자 FTA에 더해 **금번 한-싱 DPA를 체결**함으로써 본격적인 **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을 구축**하게 되었다고 높이 평가"하며,

○ "특히, 우리 정부의 **신남방 정책 주요 파트너**인 **싱가포르와 디지털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**하고 **아세안 시장에서의 디지털 방식을 통한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**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"고 언급함

* 한-아세안 B2C 온라인 직접 수출(억원) : ('14)453 → ('19)2,016 (5년간 4.5배 증가)

[디지털 통상 협정의 의의]

□ **디지털 통상 협정**은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간 교역에 대한 무역규범으로서 **전자상거래 원활화,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, 디지털 제품 무관세 및 비차별대우, 소비자 보호 및 사이버 안보 등을 주요 내용**으로 함

* 디지털 통상 협정은 DTA(Digital Trade Agreement), DEA(Digital Economy Agreement), DPA(Digital Partnership Agreement), DEPA(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)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림

○ 코로나19로 디지털전환 및 비대면 경제가 확산하면서 **아태지역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가 활발히 진행**되고 있음

*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통상협정인 싱·뉴·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(DEPA)이 출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"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"에서도 디지털 통상이 핵심 분야로 거론

기존 자유무역협정		디지털 통상 협정
* 관세 인하 ➡ **상품 교역 확대** * 서비스 양허 ➡ **국경간 서비스 공급 확대**	**VS**	* 종이없는 무역, 전자결제, 전자송장 등 규정 ➡ **상품·서비스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** *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, 데이터 이전 자유화,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 디지털 무역장벽 해소 ➡ **디지털 제품·서비스의 교역 확대**

□ 디지털 통상 협정이 체결되면, **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 거래를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**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**음악,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**와 교육, 금융, 의료 컨설팅 등 **다양한 온라인 서비스**를 **국가간에 원활하게 공급**할 수 있게 됨

[한-싱 DPA 기대효과]

❶ 한-싱 양자간, 신남방 국가와의 디지털 통상 협력 강화

□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11위 교역 상대국으로, 한-싱 FTA에 더해 DPA를 체결함으로써 **양국간 디지털 교역도 더욱 활성화**될 전망

○ 특히 싱가포르는 **아세안의 중심이자 디지털 분야에서 가장 앞서*** 있는 **디지털 허브 국가로, 한-싱DPA를 활용하여 싱가포르를 통한 신남방 국가들에 대한 디지털 분야 진출**에도 긍정적인 효과 예상

* 싱가포르 디지털경쟁력평가('20, IMD) 2위(韓 8위), ②글로벌혁신지수('20, WIPO) 8위(韓 5위)

□ 한편, 한-싱 DPA에는 무역 규범적 요소뿐만 아니라 **양국간 디지털 협력에 관한 조항을 포함**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**AI, 핀테크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*에서 양국간 협력도 강화**될 것으로 기대

* 싱가포르는 국제금융허브 도시로서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, 세계 도시 중에서도 AI 준비지수('19, 올리버 와이먼 포럼) 1위 (서울 14위)

❷ 디지털·비대면 방식 수출 증대 및 중소·창업 기업의 아세안 진출 기회 확대

□ 싱가포르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**라자다**(Lazada), **쇼피**(Shopee) **등은 아세안 지역에서도 가장 큰 규모와 네트워크를 확보**하고 있어, 이를 통해 **K-food, K-뷰티 등 우리 제품의 아세안 수출 증대**가 기대됨

○ 또한, 우리나라는 **ICT강국**이자 **K-드라마, K-무비 등 디지털 콘텐츠로 全세계적 주목**을 받고 있는 만큼, 한류를 기반으로 한 **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수출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**으로 예상됨

□ 특히,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용 및 무역 과정의 전자화로 **거래비용이 절감**되는 만큼, **중소·창업기업의 무역 참여가 더욱 손쉬워지고,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하여 아세안 시장에도 진출**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

❸ 아·태지역 및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에 주도적 역할

□ **우리나라가 두 번째 체결한 FTA**('06.3월 발효)였던 **한-싱 FTA를 시초로 현재 57개국과 17개 FTA**(발효 기준) **네트워크를 구축한 것**과 같이 **한-싱 DPA**는 **유럽연합**(EU) 등 **주요국과의 협정 체결** 및 아태지역 내 **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에 선제적으로 참여**할 수 있는 발판으로서 역할

□ 한편, 싱가포르는 **높은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,** 현재 우리가 가입을 추진 중인 **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**(DEPA) **협상도 가속화**할 것으로 예상

* 싱가포르는 싱·뉴·칠 DEPA(20.6월 서명), 싱-호 DEA(20.8월 서명)을 체결하였으며, 한국은 '21.10.5 DEPA 가입절차 공식 개시 (※ 싱가포르가 **가입 협상 의장국** 담당)

○ **유사입장국간 글로벌 통상 규범 정립, 디지털 첨단기술 및 공급망 등 신통상 아젠다와 관련해서도 긴밀한 공조 기대**

[향후 계획]

□ 양측은 앞으로 협정문 **법률검토 등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**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**한-싱 DPA 협정문에 정식 서명**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, **정부는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**임

* 협정문 번역, 관계부처 협의(법제처, 외교부 등), 차관·국무회의 심의 등

□ 또한, 한-싱 DPA 포함된 협력 조항이 호혜적이면서도 **실질적인 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간 약정**(MOU) **체결을 추진**할 계획

○ 디지털 통상과 관련하여 이미 4개의 약정*이 체결되어 있으며, 금번 한-싱 DPA 협상 계기에 **단일통관시스템 협력**(관세청), **인공지능**(AI) **협력**(과기정통부) 약정을 추가로 체결 추진

* 핀테크 협력(FinTech Cooperation, 금융위), 중소기업 협력(SMEs and Startups, 중기부), 사이버 보안 협력(Cybersecurity Cooperation, KISA), 디지털 표준 협력(Standards, 산업부)

2 CPTPP 등 양자/다자 통상협력 강화

□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.15(수)일 간킴용(Gan Kim Yong) **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**을 만나,

○ 한국은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아태지역 역내 높은 수준의 메가 FTA인 **CPTPP에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, 전략적으로 중요**하다고 판단하여, **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여론수렴 등 사회적 논의에 착수**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설명하고,

- **2022년 CPTPP 의장국**인 싱가포르가 **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적극 지지**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, **싱가포르측도 한국의 가입 추진에 환영** 의사를 표함

○ 아울러, 지난 10월 한국의 가입절차가 공식 개시(10.5)된 **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***(DEPA,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)**의 신속한 가입을 위해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**하는 한편,

* 싱가포르, 뉴질랜드, 칠레 3개국간 디지털 통상 주요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('21.1월 발효)한 디지털무역협정

-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**인태 경제적 프레임워크**(IPEF, Indo-Pacific Economic Framework)**와 관련**해서도 **한국과 싱가포르가 상호 협력**해 나가자고 논의함

* (참고) 싱가포르 통상산업부내 다자통상 업무는 간킴용(Gan Kim Yong) 장관, KSDPA 등 양자통상 업무는 탄시렝(Tan See Leng) 제2장관이 담당

□ 여 본부장은 12.14(화)일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 연구소(East Asian Institue(EAI))에서 싱가포르 주요 싱크탱크와 **「한-싱가포르 통상정책 대화」를 개최하여, 아태지역의 통상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한-싱 협력방안**을 논의함

* Deborah Elms 아시아무역센터 소장, Ong Keng Yong 난양공대 국제관계대학원 연구소(RSIS) 부이사장 (前아세안 사무총장), Alan Chong RSIS 다자주의연구센터장, Sarah Tong EAI 교수 등 참석

○ 참석자들은 최근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, **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지로서 아태지역의 중요성이 강조**되고 있으며, 특히,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**개방적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통상선도 국가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**하며,

○ **공급망, 디지털, 기후변화** 등 주요 통상현안 관련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, **CPTPP, DEPA** 등 다자통상협력을 통해서도 **아태지역의 다자무역체제 발전**을 위해 보다 **적극적인 중재자로서 역할**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

□ 더불어, 여 본부장은 **림밍얀**(Lim Ming Yan) **싱가포르 비즈니스 연합회 회장과의 회담을 통해,**

○ **한-싱 디지털동반자 협정 타결의 의의를 설명**하고, 동 협정의 타결로 디지털 분야에서 **양국 기업간 디지털 교류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**된 바,

○ **싱가포르 비즈니스 연합회가 한-싱가포르간 CPTPP, DEPA 등 협력 강화**를 위해서도 **가교 역할**을 해줄 것을 당부함

* 싱가포르 비즈니스 연합회(Singapore Business Federation, SBF)는 27,000여개의 싱가포르 기업으로 구성된 법정단체

□ 참고로,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남은 싱가포르 방문 일정(~12.16) 동안 워런 버핏, 조지 소러스와 함께 **세계 3대 투자자**로 불리는 **짐 로저스**(Jim Rogers) **로저스홀딩스 회장**,

○ 싱가포르 국부펀드 **테마섹의 CEO 딜한 필레이**(Dilhan Pillay) **, 싱가포르 대표 이커머스 기업인 Lazada 그룹 CBO 제임스 창**(James Chang) 등 **싱가포르 비즈니스 리더들과 적극적인 아웃리치**를 전개하고,

○ **현대차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**를 방문하여 **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한-싱가포르 공급망 구축 현황** 등을 점검할 예정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최원엽 서기관(☎044-203-5619), 임수지 사무관(☎044-203-5635), 신남방통상과 박찬서 사무관(☎044-203-571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